

군 복

전차길에서 얼마 안 들어가 벌써 길은 비탈이 되었다. 바다와 산 사이에 낀 이 고장의 지리적 위치와 발전의 과정을 여실히 말하듯 두서없이 뚫린 미로와 같은 골목들, 그 골목들은 셀 수 없도록 가지를 치며 끈기 있게 뻗어 산에 이른다.

인가의 분포 상태는 평지보다 오히려 밀도(密度)가 짙고, 위치는 계급과 반비례한다. 죽 올라갈수록 누옥이다. 점토질(粘土質)의 길은 비가 오면 마를 때까지 범벅이고 식수 곤란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서 내려와 살던 은히는 산비탈에 사는 부족은 아니었으나, 그 골목길과 산은 그녀의 기억에 있어, 생미역 냄새와 멩계의 붉은빛과 같이 언제나 그리웠다.

아련한 기억을 더듬으면 푸른 보리밭과 성긴 소나무 숲, 이윽고 바위와 산에 피는 꽃들이 눈에 떠올랐다.

연분홍빛 패랭이꽃, 푸른 반디꽃들은 비가 오면 시내가 되는 산골짜기를 덮고, 언덕에는 짙레꽃이 새하얗게 떠오르고, 바위 그늘에는 남빛 붓꽃이 곱게 피었다. 언덕 위에는 푸른 페인트로 창살을 칠한 선교사의 붉은 양관이 이국 정서를 띠며 신비스럽게 침묵에 잠겨 있

고, 높고 곧은 백양나무가 세 그루, 해풍을 정면으로 받고 싸르르를 싸르르를 소리를 쳤다. 구덤스레한 인가에 끼어 꼬불거리던 길은 여기 와서 한가로이 뻗혀 고개 위에 사라지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고갯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고개를 넘고 별판을 지나 등성이 평탄한 보리밭 속을 한참 가노라면 길은 내리받이가 되어 또 시가에 나가게 되는 것이었다.

은히는 자기 집이 있던 골목길에 들어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홍역으로 어린것을 잃었다는 형을 찾아 초량에 갔다 오는 길에 영주동 시장을 지날 때, 문득 가슴을 찌른 짙은 향수——그 향수를 채우고 싶어 이 길에 들어선 그녀였다.

학교 앞을 지났다. 학교는 붉은 벽돌 본관과 목조 별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문전에는 보초가 서고, 교정에는 누런 군복이 오고 가고 할 뿐, 아이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전시 풍경은 이미 새롭지도 않았건만 역시 은히는 쓸쓸했다.

그녀는 사면을 둘러보고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런 곳이었던가, 하는 환멸에 가까운 놀라움. 그토록 그림고 그토록 아름답던 고장의 현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민다.

십여 년이란 때의 흐름이 이토록 때를 묻혀 버린 것인가, 또는 애당초부터 이러한 곳이었던가 그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완강한 붉은 벽돌 교사, 약간 기울어진 블록담, 철문, 이윽고 담 아래 더러운 개천, 놀라울 만큼 돌이 많은 길 옆에는 개천 친 찌꺼기가 처처에 쌓여 있고, 그 길 한편에 늘어선 집들은 추녀가 기울어진 고옥들이었다.

아이들이 고무줄을 타며, 즐거이 노는 옆을 은히는 묵묵히 지났

다.

옛날 그대로 서 있는 큰 고목나무 옆 골목에서 들어섰다. 열채 골목 가는 길이었다.

옛날 그대로였다. 좁은 길은 초라한 고목들을 끼고 여전히 꼬불꼬불 올라갔다.

열채 골목!

은히는 길목에 우뚝 섰다. 이것이 열채 골목이었던가?

뒤에서 어느 노인이 걸어왔다. 은히는 어느 집 대문 옆으로 길을 비켜 노인에게 길을 내어주었다. 그토록 좁은 골목, 불결한 개천에서는 악취가 찌르고 마주 나란히 선 열채의 집은 납작하게 주저앉고 기둥은 기울어, 그 중에는 몇 년이나 이지 못한 썩은 초가 지붕까지 섞여 있었다.

이것이 열채 골목! 은히의 머리속에서 모든 추억이 와르르 소리 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열채 골목이라면 이 열채 골목 위에 쌓아 올린, 자기 어린 추억의 정체도 모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곳을 아름답고 그리운 곳으로 항상 알던 자기의 어리석음보다도 그 당시 조출한 중류 이상의 가정들만 살았던 열채 골목이 실상은 이토록 가난하고 초라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놀라웠다.

열채 골목에는 본바닥 사람은 얼마 없고 모두 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살았다.

잠시의 숙사로 안 까닭으로 만족하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해도 지금 눈으로 보니 너무나 초라한 집 모습들이다. 고가한 보석으로만 알고, 고이고이 간직하던 것이 실상은 유리쪽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관장 너머로 냇마 같은 기저귀가 널린 것이 보이는 옛날 살던 집을 서글피 보며 골목을 나선 그녀는 발을 멈추었다.

어느새 된 것인지 신작로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걷고, 아이들이 뛰놀고, 길 양편에는 집이 늘어서 있다.

그녀는 잠시 현기증이나 난 것같이 앞이 아찔해졌다. 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더듬었다.

그 때였다. 저편에서 키가 큰 군인이 한 사람 이쪽으로 내려왔다. 군인은 키가 클 뿐 아니라 몸집도 컸다.

두 팔을 크게 저으며 내려오는데 검은 얼굴에 약간 손티가 보이고, 굵은 눈썹이 군모 아래서 위엄을 보였다. 순간 은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냥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군인은 젊은 여인에게 인사를 받고 놀란 모양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반가움에 눈을 크게 뜨며

“은히 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은히는 그제야 가슴이 툭 내려앉았다. 자기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군인은 보통 학교 시대의 남학생이었다. 두 반 위에 있었으나, 키가 크고 숙성한 것으로 미루어 은히보다 너댓 살 위임에 틀림없었다. 한 학교에는 다녔으나 말은 물론 인사 한번 없고, 은히 쪽에서는 거들떠본 적도 없는 존재였다. 이름조차 모른 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그에게 무엇 때문에 웃음까지 보이며 허리를 굽혔는가? 그녀는 얼굴이 확 달았다.

“어디를 가십니까?”

군인이 하얀 이를 보이며 물었다. 굵은 베이스다. 언제 왔느냐고 묻지 않는 것이 우스웠다.

“정말은 산에 가구 싶은데요, 길이 달라져서.”

“산이라니요?”

“저 위엣산을 넘어서 대신동으루 가보구 싶어요.”

“저도 대신동으로 가려고 전차길로 나가는 중인데, 그럼 동행하실까요?”

“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너무나 변함없는 학교 부근과 열채 골목에 비해 산은 변모되어 있었다.

패랭이꽃과 반디꽃이 덮였던 골짜기에는 집들이 서고, 나무는 하나 없이 배어져 벌거숭이가 되고 산꽃이 피던 데는 사람의 발길 아래 풀 하나 나지 않았다.

선교사의 양관은 폐허가 되어 헐었는데 마구 판때기로 막아 마치런 비단옷을 냥마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 나뭇가지에 맨 줄에 빨래가 휘날리고, 더러운 꼴을 한 아이들이 몰려 놀고 있었다.

은희의 눈에 비로소 눈물이 떠 올랐다.

옛모습을 찾을 길 없는 여기 와서 그녀는 오히려 그리운 그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발을 멈추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내일 전선으로 출동합니다.”

여지껏 말없이 걷기만 하던 청년이 문득 말하고 은희의 옆얼굴을 쳐다본다.

“네?”

“김철수 목숨을 바칠 때가 왔나 봅니다.”

“별말씀을. 무운장구허셔서 개선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동안 서울 기셨지요?”

“네.”

“작년 이만때 문리대 앞에서 은희 씨를 뵈었습니다. 짙은 외색 스커트에 미색 블라우스를 입고 책을 옆에 끼고 플라타너스 밑을 걸어

가시더문요.”

철수는 예전부터 익숙하던 사람같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김 선생님은 어디 기셨어요?”

“나? 해방 후에 문리대에 들어갔지요.”

“네?”

“은히 씨 옆을 몇 번이나 지났습니다. 은히 씨는 언제나 앞만 보고 다니시니깐 하하…….”

은히는 내심 놀랐다. 아까 이 키 큰 군인에게 허리를 굽힌 것은 그러면 옛날 상급 학생에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서 가끔 만난 대학생에게 한 것인가—— 그러면, 왜 서울서는 이 키 큰 대학생에게 옛날 상급 남학생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가?

그러나 철수는 그런 점에는 조금도 구애 앓는 자연한 태도로

“육이오 후 석 달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되자 정훈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담히 신변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은히는 말없이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았다.

“한 가지 말씀하는 걸 용서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달라진 음성으로 철수가 말하였다.

“……?”

“은히 씨가 서울루 떠나실 때 나는 중학 일학년이었지요. 나는 친구 누이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 날마다 열채 골목 근처를 헤맸답니다. 떠나시는 날 정거장까지 나갔는데 플랫폼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 밖에 서 있다가 기차가 움직이자 같이 쫓았지요. 구외(構外)를 기차와 병행해 쫓다가 말뚝에 걸려 쓰러졌답니다.”

“네?”

“그 때 흥이 지금두 남아 있지요. 하하…….”

철수는 겸연쩍은 듯이 웃었으나, 은히는 따라 웃을 용기가 없다.

고개만 수그렸다.

어떤 뉘우침이 이 담담한 군인의 말과 함께 그의 가슴에 들어섰다. 열채 골목을 과대 평가하였던 자기는 이 진실한 청년을 너무나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한편 자기는 이 청년에 있어 열채 골목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은히는 청년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두려웠다.

“소학교 교원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간 것도 은히 씨와의 기우(奇遇)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었는지도 모르지요.”

철수는 자기 말에 놀란 듯이 말을 끊었다가

“그러나 역시 나는 플랫폼에 들어갈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구외를 기차를 따라 쫓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에 흉은 안 남았지만 다른 데 더 큰 흉이 남았습니다.”

“네?”

“마음에…….”

철수는 말하고 얼굴을 붉힌 채

“죄송합니다. 하여선 안 될 말을 한 것 같구먼요. 나는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날 몸, 웃고 잊어버려 주세요.”

은히는 고개를 숙인 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듣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신에서 힘이 빠져 나릿하고도 그윽한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름도 모르던 군인에게 웃음까지 보인 자기, 플랫폼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던 사람이 출정을 목전에 둔 대담한 고백——이것은 대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부유한 가정과 미모와 어느새 굳어 버린 오만한 성격에서 오는 일종의 이완(弛緩)이 피난지라는 독특한 경우와 더불어, 조심성 없이 그에게 호의를 보이게 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고백의 도화선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순정과 진실 앞에 자기라는 존재는 얼마나 경솔하고 저열한 것일까?

은히는 자욱해진 머리를 약간 흔들고 상기된 얼굴을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자기 말에 당황하여 병병히 서 있다. 넓은 어깨와 늘씬한 체구에 군복이 어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모표는 소위의 계급을 표시하고 있다.

순간 은히는 마음이 남음 없이 밝아지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렇다. 오랜 세월을 통해 그렇게도 오만하였던 그녀는 이 군복을 입은 모습 앞에서 비로소 겸허를 알았고, 철수는 이 군복을 몸에 붙인 이때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순간의 감명을 영원으로 부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 앞에서 허식을 벗자.

은히는 당황해 하는 철수를 상냥한 눈초리로 응시하다가 바다로 시선을 옮겼다. 문득, 행복—— 이제까지는 정의(正義)조차 모르던 이 문구가 가슴에 떠오른다.

그녀는 가만히 입속에서 외쳤다.

“잊어버리라고요? 오오 절대로!”

푸른 바다를 새하얀 배가 한 척 항구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었다.

(1953. 6.)